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35장(큰 영화로신 주)
※ 교 독 문 25(시편 47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250장(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배기도 1부 안복선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 이 땅위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바른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시편 103:1-6
찬 양 박상귀권사
말씀선포 임마누엘찬양대
기 도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3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봉 헌(4구역)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께	찬 양 / 다 함 께	찬 양 / 다 함 께	찬 양 / 다 함 께	이사야서 강해	
기 도 / 김인순권사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금요기도회	
본 문 / 딘전 3:15	본 문 / 고전 16:15-18	본 문 / 고전 16:15-18	본 문 / 고전 16:15-18	금요일 오후 9시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한마음기도, 중보기도	
*Acts29교회매뉴얼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개인기도	
-제1과정 교회	하는 사람”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축 도 / 최세열목사	주시기도문 / 다같이	주시기도문 / 다같이	주시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민영화 함경숙 김현순	다 음 주 기 도	1부	이경훈전도사
		김금자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6월 방옥남 최임춘 엄정현 박현순	다 음 주 기 도	1부	말 은 이
		7월 김한순 노재의 한미경 정재영		2부	심문자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A	다음주 루디아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오복실권사
헌신찬양	금주	4 구역	다음주		3 구역

찬양하라 내 영혼아 / 시편 103:1-6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운 성장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일예배를 드릴 때 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례송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영혼과 온 몸을 향해, 곧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고백입니다.

1.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요리문답을 통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바로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150편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온 몸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6:1절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은 이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계속될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예배에 있어서 찬양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22: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119:164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2.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 사사 드보라의 찬양, 한나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질병에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찬양해야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에서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시23:4,5).

5절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29-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으로 옮겨줍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역임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는 천군들도,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 잊고 지내기 쉬운 일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절고 속에 있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찬송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해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풀조차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몸과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주제 / 6. 성령(2013.6.2.)

제 1 과 성령의 바람 불어라!(에스겔 37:1-14절)

말씀 살피기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에 마른 뼈들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룹니다.

1.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2절)
2.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를 향해 뭐라 말씀하게 하셨습니까?(5)
3.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10)

말 씀

조국을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른 뼈에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소망을 잃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첫째,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은 곧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에스겔은 상식적으로 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둘째,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자 뼈들이 회복되어 큰 군대가 됩니다. 이 생기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재창조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을 벗어나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망의 골짜기에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대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바람은 곧 생명의 숨입니다. 봄바람이 새순을 흔들며 잠 깨우듯이 성령의 바람은 사람 속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씨앗을 싹틔게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파괴, 소통의 부재로 상처받고 얼룩져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 평화의 바람, 희망의 바람이 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소통케 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소통이 있고, 소통은 생명을 숨 쉬게 합니다. 결국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주저앉은 우리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적용

1. 성령의 바람이 막혔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의 경험들을 이야기해봅시다.
2.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제직회로 모입니다.
2. 신도회 찬양대회가 6월 23일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있습니다. 각 신도회는 찬양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가곡 : 복음송 1곡)
3.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은 총회선교주일입니다. 총회의 선교사역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홈페이지를 다시 정리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각 부서와 사역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들의 친교의 장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찬양대와 텅빈 회중석

성탄절을 앞둔 ‘찬양의 밤’입니다. 강단쪽에는 20여명의 찬양대원들이 늘어섰고 협연을 약속한 이웃 고등학교의 밴드부원 10여명도 금관악기를 번쩍이며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회중석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불가게를 하는 박 속장 한 사람만 구석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역력했고 지휘자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반주자가 “해야 되나요?”하며 지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휘자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고 연주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지휘자의 고백입니다. 그 역시 ‘해야 하나’하며 망설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반주자의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가?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는데’라는 생각이 등을 모질게 두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그 망설임을 정리하는 데는 1초도 필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주님을 찬양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찬양의 능력

인도의 초기 선교사로 활동하던 스코트(Scott)목사가 새로운 선교지역을 찾아 나섰다가 호전적인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붙잡아 그의 심장에 창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스코트 선교사는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며 원주민 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스코트는 죽음을 기다리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3절을 부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스코트 선교사는 여러 해 동안 그들과 살면서 원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찬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22 2013.6.2.

6 월의 행사

1. 제직회 : 6월 2일 주일예배 후 본당.
2. 평신도참여예배 - 바울회(6월 16일)
3. 신도회별 찬양대회 - 6월 16일 찬양예배시간 (복음송 가운데 1곡 / 담당:친교부장 김혜경권사, 강은순전도사)
4. 해든솔 선교활동 -6월 8일 오전8시 30분
5. 성령충만을 위한 작정밤기도회 : 7월 1(월)-5일(금)
6. 총회선교주일 : 6월 9일
7. 총회 60주년 선교기념예배 : 6월 10일 한신대학교교회

단 한번의 한 세상 이 작은 생명으로

하나님 내 주 하늘의 아버지.
6월의 초여름을 신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싱그럽게 성장하는 저 신록의 나무처럼 자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단 한 번의 한 세상 이 작은 생명을 귀중히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허락하신 친구와 주 안에서 교우를 보석과 진주보다 아끼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할 만 한 것만 사랑하게 하소서.
참으로 귀중히 여길 것만 귀중히 여기게 도와주소서.
이차적인 것과 삼차적인 것을 붙들고 귀한 생명을 낭비하거나 소모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오늘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생명은 세례요한처럼 사도바울처럼 불타면 비워야 할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땅에 묻거나 헛된 것에 저당 잡히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중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심 일 조 : 김혜경 김근중 주종임 김기수 신혜영 안진영 김연학 김장숙 양석임 권세갑 김금자 김애자 이종봉 이춘호 강은순 김대봉 안복선 김애경 김선주 원혜경 이경훈 최임춘 강항구 류종란 강동균 김현아 장영분 선우명환 박정일 박지영
- 감사헌금 : 강경원 강푸른 김선주 원혜경 김혜경 이경훈 최영랑 이강영 이소향 노재의 김영란 신공님 박광섭 서영자 김애자 무명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심문자 이종춘 권세갑 김금자 김애자 김선주 원혜경 이종봉 이춘호 이윤화 이현화 김혜경 김근중 주종임 양석임 장영분 선우명환
- 비전씨앗 : 박주한 배영인 김예진 김승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이현옥	4	20,000	15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박정미	6	24,000	60	강은순
2	정정희	김한순	박희순	4	27,000		공영순	8	김순님	오복실	김상예	7	20,000	40	김장숙
3	이춘호	황경숙	신공님	3	13,000	100	주현숙	9	인명화	이영란	김인순	3	11,000	80	박치국
4	김기희	최경선	최경선	5	19,000	70	김기희	10	장영분	박현순	교 회	2	12,000	100	
5	이문순	원혜경	교 회	2	15,000		정혜진	계				40	178,000	565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4	17,000	100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